

북구, 한새봉~삼각산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개통

연결다리 61m·등산로 정비 등 3·4 구간사업…2028년 마무리

광주 북구가 도로로 단절되었던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숲음길 2구간’을 개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공사’가 최근 준공 완료돼 5일 오전 개통식이 열린다.

개통식은 행사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일곡동 명상의 집 잔디광장에서 열리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환경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의 숲음길 공사는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부터 삼각산·한새봉·매곡산·운암산·영산강까지 도로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잇는 23.5km 구간의 친환경 숲길을 조성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시민의 숲음길 2구간은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구간으로 이곳에는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길이 61.3m·폭 3m 규모 ‘숲길 연결다리’가 일곡동 산 56번지 일원에 설치됐고 5.5km 구간의 등산로도 정비됐다.

북구는 2구간 조성에 따라 한새봉에서 삼각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연결돼 도심 산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생태 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남은 구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명품 숲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가 지난해 9월 착공한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공사’가 최근 준공 완료됐다. 사진은 길이 61.3m·폭 3m 규모의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연결다리. **광주 북구 제공**

한편, 시민의 숲음길 1구간(문흥동~삼각산·국립5·18민주묘지)은 지난 2012년 조성됐으며 북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협력 등을 통해 한새봉·매곡산·운암산~영산강으로 이어지는 3구간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하고 군왕봉과 삼각산을 잇는 4구간은 내년 기본설계를 시작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출산가정 ‘아이 배려 스티커’ 제공 광산구 수완동

광주 광산구 수완동행정복지센터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친화적인 동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배려스티커는 이웃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수완동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했다.

스티커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와 ‘아이가 자고 있어요’ 총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는 자동차 뒷유리에 부착해 주변에 영유아가 타고 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아이가 자고 있어요’는 현관문에 붙여 방문객들에게 초인종 대신 노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해당 스티커는 수완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회복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복지 창구에서 받으면 된다.

김상철 기자

광산구, 폭염 탈출 프로젝트 추진 구청사 등 얼음 생수 냉동고 설치

광주 광산구가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산시민 폭염탈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는 광산구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18개소에 ‘얼음 생수 나눔 냉동고’를 설치·운영한다. 이달까지 냉동고마다 매일 얼음 생수 150개를 채워 두고, 더위에 지친 시민이 자유롭게 꺼내어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1인당 하루 1병씩 제공한다.

또 광산구는 시민 누구나 얼음 생수 나눔 냉동고, 무더위 쉼터 등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 위치와 정보를 담은 ‘얼음물지도’를 제작했다.

얼음물지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포스터, 리플릿 등 형태로 배부한다. 구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광산구는 ‘얼음물지도’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5일부터 11일까지 ‘얼음물지도 퍼 나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인 누리소통망에 ‘얼음물지도’ 홍보물이나 홍보 링크를 올리고 이벤트 참여 QR코드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농촌 지역 고령 농업인, 야외 공사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예방 순찰차’ 운행도 추진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2~5시 사이 농촌, 건설 현장 등을 돌며 야외 활동 자재 등 폭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노동자, 농업인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 7월28일을 시작으로 9월30일까지 살수차도 운영한다. 살수차는 △1권역(점단·신창) △2권역(수완·하남·신가) △3권역(도산·송정·여룡·월곡·운남)으로 나뉘 하루 2회(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 1시~6시) 운행한다.

광산구안전모니터링봉사단,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여름철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극심한 무더위 속 시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재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달 31일 하이브 서구 교육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수료식을 개최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지속가능발전 리더 34명 배출

광주 서구는 지난달 31일 하이브(HiVE) 서구 교육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수료자 34명을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은 광주보건대학교,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일상 속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됐다.

서구는 지난 6월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지난달 31까지 서구민 및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총론·사회·경제·환경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총 9회의 오프라인 교육과 10강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서구는 총 34시간의 강의 중 80% 이상 이수한 주민에게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을 부

여하고, 일부 수료자에게는 하반기 운영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학부모 코치단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점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미래세대가 행복한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서구, 어린이·결혼이주여성에 지역발전 유공 표창

착한도시 서구 실현 기여한 공로 김수현양 아파트 경비원에 손편지 원가빈씨 다문화가정 언어 강의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김수현 어린이(윤전초 2학년)와 광주서구가족센터 원가빈씨에게 구정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역대 구정발전 표창자 중 최연소인 김수현 어린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해 당사자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평소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를 즐겨하는 김수현 어린이는 지난 6월 자신

이 살고 있는 금호쌍용아파트(서구 치평동) 경비원에게 편지를 썼다.

종이 한 장에 손글씨로 “항상 아파트 단지들 안전한지 둘러보고 쓰레기 줍느라 힘드실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좋고 언제나 행복하시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

해당 편지를 받은 경비원은 깊은 감동을 받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아파트 관련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원가빈씨는 지난 2008년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으로 광주지역 유일의 베트남어 문화관광해설사다.

원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후 가족,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을 갚아야겠다

는 생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1년부터 서구가족센터에서 언어·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를 배워 자유롭게 소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는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린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열정이 착한서구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정리수납, 나비활동가들에게” 동구, 유품정리·특수청소 지원

광주 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동구형 유품 정리 사업’을 위해 양성된 ‘나비(나눔과 비움) 활동가’들이 8월 총장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주민 봉사자로 구성된 나비활동가 23명은 지난 상반기 동안 유품정리 등에 관한 교육을 완료했으며 총장동에 이어 산수2동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관내 13개동을 순회하며 생전정리 수납 및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서비스를 지원한다.

눈여겨볼 점은 사후 유품 정리보다는 ‘생전 소유물 정리’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나비활동가들이 생전 정리수납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해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은 비우고 이웃과 나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선순환, 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첫 활동 대상자인 총장동의 한 독거 어르신은 “오래된 물건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어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파 차일피일 미뤘었다”면서 “활동가들 덕분에 살림살이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동구형 유품 정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관(官) 주관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물품 정리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가구의 정리수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년층 가정에는 정리수납 멘토링도 병행해 해당 가정이 정돈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